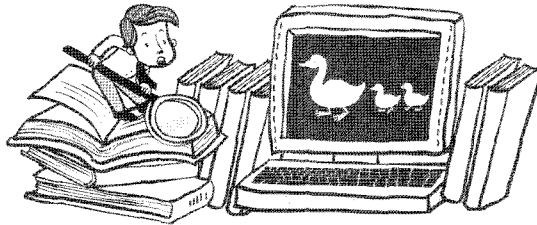


2010년 국내 사료산업 동향 및 2011년 전망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홍성수 차장

1. 배합사료 생산 부문

가. 2010년 동향

금년도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구제역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연초의 우려와 달리 비교적 큰 폭의 생산량 증가를 시현하였다.

2010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을 살펴보면 15,908천톤으로 2009년 같은 기간의 14,919천톤에 비해 6.6% 증가하였다. [표 1 참조]

이를 연간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무려 17,354천톤으로 지난 2007년 16백만톤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1백만톤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 된다. 지난 1996년 15백만톤

돌파 이후 16백만톤 생산까지 11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빠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IMF외환위기와 각종 가축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사육두수의 감소로 배합사료 생산량이 줄어든 해가 4번(1998, 2001, 2003, 2004)이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폭의 생산량 증가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큰 폭(4.1%)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하였던 양계사료 생산량이 금년도 11월까지 4.0%의 생산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미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소비증가와 사육심리 안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양돈

[표 1] 2010년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2010.1-11월(A)	2009.1-11월(B)	누계대비A/B(%)
양계	4,245	4,081	104.0
양돈	5,019	4,824	104.0
낙농	1,174	1,190	98.7
비육	4,304	3,863	111.4
기타	1,166	960	121.4
오리	501	384	130.5
계	15,908	14,919	106.6

※출처: 한국사료협회



집중탐구

2010년 국내사료산업 동향 및 2011년 전망

용 사료의 경우에도 지난 1월에서 5월에 걸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의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4.0%의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구제역 발생시 정부와 방역당국의 신속한 초동대처와 대국민 홍보로 과거 2002년의 구제역 발생과 같이 국가적 혼란사태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부진을 겪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낙농용 사료의 경우 2009년 4.3% 감소에 이어 금년 11월까지도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하여 사육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한편, 비육우 사료와 기타 사료의 경우 금년 1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4%, 2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비육우의 경우 미산쇠고기 전면 재개방 이후 BSE 우려에 따른 한우소비 선호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둠에 따라 중저가 한우전문 식당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육심리 안정이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AI 미발생과 웰빙심리의 확대, 다양한 요리방법 개발에 의한 전문식당의 증가로 오리고기 소비열풍이 나타나면서 오리를 포함한 기타사료 생산의 급증이 시현되었다.

나. 2011년 전망

이와 같이 2010년 11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의 증가폭을 기록하였으나 내년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배합사료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육심리를 살펴보면 그동안 경이적인 생산증가를 보이던 한우 사육두수가 3백만 두를 목전에 두면서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급락이 우려되면서 저능력우에 대한 도태 등 향후 사육두수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지속적 증가로 한우사육 열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돼지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사육두수가 사상최대인 990만두로 그동안의 양돈사료 증가세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3월 사육두수는 분만을 저하와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한 사육심리 저하로 982만 마리로 전망되는 등 금년 말의 하나의 꼭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참조]

더욱이 2010.11월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청정지역이었던 경북지역을 휩쓸고 이어 경기도 연천, 양주, 파주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살처분 두수가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2002년의 16만여 두를 넘어서는 20만여 두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이제 확산규모를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된 점은 내년도 한육우, 젓소, 돼지의 사육심리 위축과 동 축종의 배합사료 생산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육계사료와 산란계사료, 오리사료의 경우 닭고기와 계란, 오리고기의 소비증가로 높은 병아리 입식열기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생산량 상승세가 전망되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시기를 무사히 넘어야 하는 관건이 있다.

2. 2010년 배합사료 가격 동향

2010년도 배합사료 가격은 국내외 사료산업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총 5차례에 걸친 고인상이 아닌 3~5%의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료가

【표 2】 2010년 가축사육동향

(단위: 천 마리)

축종	09.3/4	09.4/4	10.1/4	10.2/4	10.3/4
한우	2,489	2,477	2,553	2,734	2,788
육우	152	158	154	154	161
한육우	2,641	2,635	2,707	2,888	2,949
젓소	438	445	449	432	429
돼지	9381	9,585	9,768	9,728	9,901
닭	138,431	138,768	144,588	172,948	140,990

※자료: 통계청, 2010

【표 3】 미국 옥수수 수급실적

	생산량 (백만톤)	총소비량(백만톤)		재고량 (백만톤)	재고율(%)
		국내소비	수출		
10/11.10(A)	321.68	291.60	50.80	22.90	6.7
09/10(B)	333.01	281.87	50.47	43.37	13.0
증감율(A/B)	▲3.4	3.5	0.7	▲47.2	

※출처: 미국 농무성 10월 수급보고서

격과 환율의 변동성 서로 엇갈리게 맞물리면서 다른 한쪽의 변동요인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판단된다.

먼저 배합사료 가격의 가장 큰 동인인 국제곡물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곡물수급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사료용 곡물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옥수수는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9%, 수출량의 60%를 점유하고 있는데 미국 2010년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대비 3.4% 감소하고 총 소비량이 에탄올용 및 사료용 소비증가로 전년대비 3.0% 상승하면서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47.2% 감소한 23백만톤에 불과하여 총 소비량 대비 재고비율 6.7%에 그치면서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표 3 참조] 이는 FAO 권장 재고율인 16~17%를 한참 하회하는 것으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던 2008년도보다 낮은 재고율로서 그 원인으로

는 파종기 및 생육기의 지나친 가뭄과 높은 기온, 수확기의 잦은 강우로 단위당 생산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 및 수요동향은 국제 옥수수 가격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2007년과 2008년에 형성되었던 고곡가시대의 재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주요 원료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옥수수 가격은 306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상 최고가였던 2008년 4월의 420불대와는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직후 비교적 안정적 가격대를 유지하던 2010년 1월대비로는 무려 24.1%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참조]

이는 2010년 8월, 100년만의 가뭄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전격적인 곡물수출을 잠정중단하면서 시작된 밀 가격의 앙등이 옥수수를 비롯한 여타 곡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미국 옥수수 재고율이

집중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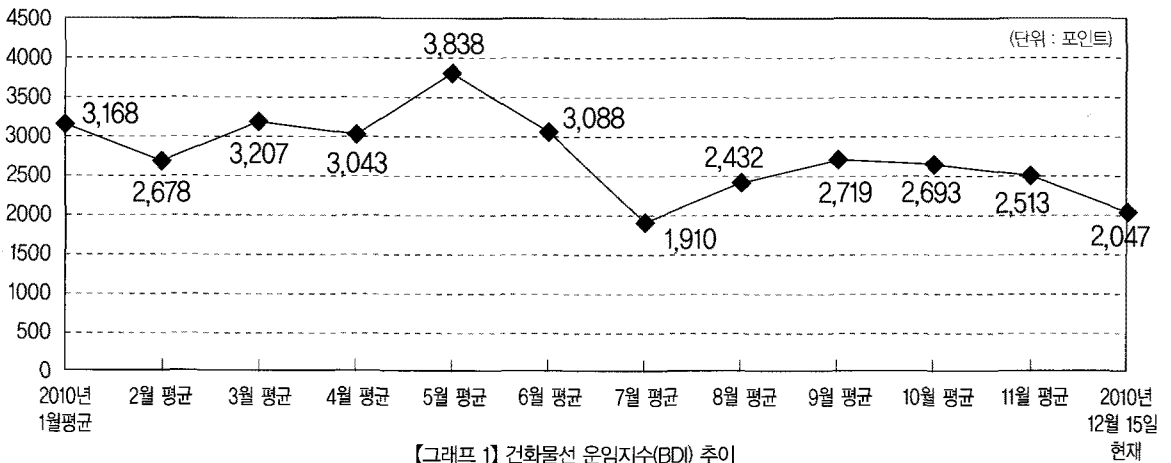
2010년 국내사료산업 동향 및 2011년 전망

[표 4] 주요 원료 가격동향

(단위 : US\$/톤)

품 목	12월현재 (A)	전월평균 (B)	1월평균 (C)	가격 변동률(%)	
				A/B	A/C
옥수수	310.68	299.51	246.97	103.7	125.8
대 두	565.57	556.32	448.87	101.7	126.0
대두박	471.35	462.63	435.87	101.9	108.1

주) 동 가격은 CBOT(시카고상품거래소) 가격과 해상운임을 합산한 가격(C&F)임.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옥수수 가격상승에 따라 미국 농부들이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미국 대두(콩)의 파종면적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로 대두 및 대두박 가격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수입국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2007/2008년, 곡물가격 급등과 맞물려 국내 도착가격(Cost & Freight : C&F)을 폭등시켰던 해상운임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미루어 졌던 신조선(新造船) 선박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BDI(Baltic Dry Index :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의 건화물선 운임지수)의 하락과 더불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前述하였다시피 배합사료 원료의 해외의

존율이 70~75%에 달하는 점에서 배합사료 가격의 주요 변동요인인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 각국들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고무스런 일일 것이다. [그래프 1 참조]

3. 2011년 배합사료 가격 전망

국내 배합사료의 해외의존율은 90%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필수여건은 국제곡물시세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2007/2008년과 같은 가격폭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와 당시 고곡가를 견인하였던 중국의 곡물수요 상승세가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한풀 꺾이면서 안정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이미 높은 가격대를 보이는 현재의 시세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말까지는 앞서 말한 세계경제의 불안(유럽 재정위기, 더블딥 우려)과 이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으로 곡물에 대한 비상업적(투기적) 매수가 주춤해 질 것으로 예견되나 내년 이후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수급불안 즉, 미국 옥수수의 재고율 급락, 러시아 등 동유럽의 곡물수출 중단지속, 라니냐 등 기후불안에 따른 남미곡물의 작황부진 등이 달려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로의 자금유입과 맞물린다면 현 가격대 이상으로의 고곡가가 재현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원/달러 환율은 2010년 12월 들어 그동안의 안정세를 벗어나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예견되어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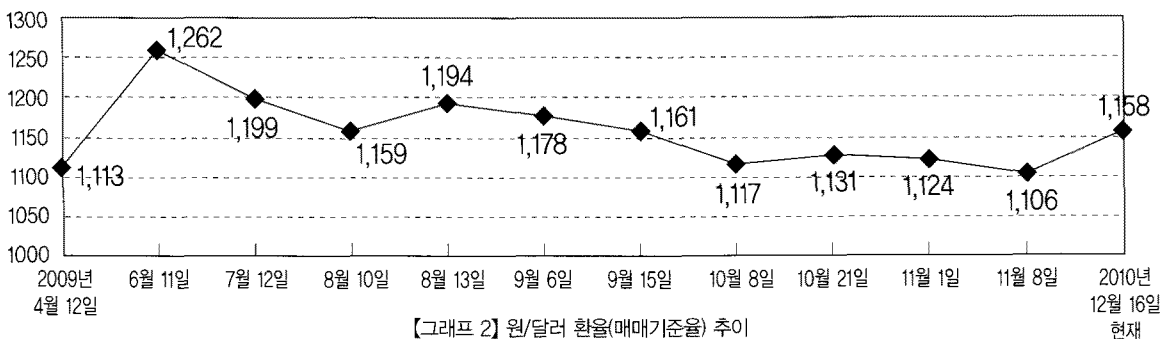
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화강세가 시현되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최근 유럽 발 위기재연에 따른 달러강세는 단기적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그래프 2] 참조

우리나라 배합사료 제조비용 중 원재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가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원료 가격의 상승과 환율불안은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은 물론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明確觀火)하다.

이에 배합사료 업계 일부에서는 2011년 초 한 자리 수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나 최근 닥친 구제역 파동과 AI발생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을 적용하면 내년 상반기 배합사료 가격은 현 시세보다 약 10%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래프 2】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추이